

濟州島研究 제14집(1997), pp. 53~80

〈특 집 : 제주학의 과제와 방법〉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¹⁾신 행 철²⁾

I. 서론

세계화·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무한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각 지역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 지역의 특성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역정체성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자기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것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상품화하려는 전략을 세우려는 것과 관련된다. '정체성 없는 세계화는 속빈 강정'이라고도 하거니와 이 글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에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은 이런 시사적 의의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라는 자기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인식의 대상을 정의하고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집단정체성은 '우리'와 구별되는 '그들'이 누구인가,

1) 이 글은 제주학회 제 13차 전국학술대회(1997. 11. 14. 주제: 〈제주인, 제주문화, 그리고 일본〉)에서 '제주인의 정체성 : 제주와 일본에서의 삶'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기초발표문을 그 제목과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2)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라는 질문에 의해 매개되며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와 결부된다.)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규정하는 기초가 된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와 그들간의 경계이다. 이 경계는 특정의 사회 집단을 다른 사회집단과 구분지어 그 특이한 여러 원칙들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회집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며 당해 사회집단을 특정의 방식으로 보도록 하는 힘이 된다.(정근식 1997: 122-23) 이 때 그 정체성의 범주를 지역으로 잡을 때 지역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이 정체성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동일한 시간적·공간적 생활환경을 경험하면서 그 사회성원들 사이에 상호교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형성되고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위방식이 되어 문화적 맥락을 이룬다. 그리고 단기간에 쉽게 변화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집단의 범위를 지역적 한정성을 갖는 제주사회로 하고 제주사회의 성원인 제주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그러니까 제주인의 정체성 곧 제주사회의 집단(지역)정체성인 셈이다. 이 정체성은 그 집단 나름의 고유성, 전통보수성, 특수성, 독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김향원 1990: 3).

이런 정체성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정근식 1997: 124-25).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집단을 타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 사회를 범주화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둘째, 정체성은 지속적인 생성의 과정에 있는 역동적 실체이며, 특정의 사회구조적 조건 속에서의 사회적 경험의 산물이다.

셋째, 여러 가지 상징적 형식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정체성은 자기 집단과 타인집단에 대한 이미지로 구성되는 정신적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일상 생활 속에서 일성의 삶의 형식으로 구현된다.

제주인의 정체성도 이상의 맥락 속에서 살펴 볼 수 있겠는데, 제주인의 삶의 방식과의 관련 속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주사회의 외부집단과의 관계의 내력, 그 삶의 특징적 환경을 살펴봄으로서 그 정체성의 기반을 확인하고 제주인의 삶의 특유한 방식을 통하여 제주인의 정체성의 면모를 고찰하여보려 한다. 특히 재일 제주인의 경우 그들의 삶의 환경이 타인집단과의 구분이 더욱 뚜렷할 뿐 아니라 일본 속의 소수집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을 것임으로³⁾ 재일제주인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유의하고자 한다.

II. 제주사회의 성격과 제주인의 삶

물적·공간적 생활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인간적 대응 사이에는 상호 교호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그 관계가 역사적 경험과 결합, 구조화되어 한 사회의 기본적 성격이 규정되고 이는 그 사회 성원들의 삶을 특징지어 준다. 인간 사회 자체가 사람들이 제한된 지리적 공간과 시간적 특수성에 결부하여 영위해 온 삶의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제주사회가 갖는 물적·공간적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제주인들의 방식,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제주사회의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제주인의 특징적 삶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사회의 물적·공간적 기반과 역사적 환경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제주인의 삶에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제주사회의 기본 성격에 관한 논의이면서 정체성을 찾는 시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일정한 삶의 형식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인의 삶을 규정하고 그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요인으로는 도서성, 삼재(三災)의 기후 조건, 지리적 주변성, 피억압적·피차별

3) 재일 제주동포의 소수집단으로서의 성격과 그 소수집단의식(정체의식)에 관한 논의는 신행철(1982 특히 133-139)을 참조할 것.

적 역사성, 척박한 농토, 영농규모의 협소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⁴⁾

1. 도서성과 제주인의 삶

도서라는 지리적 조건은 생활이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자족적일 가능성을 크게 하였다. 제주인의 대부분의 생활은 섬속에서 영위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제약 조건은 역사적으로 조선조의 출륙 금지 등 정치적 조치 - 예컨대 인조~순조 연간 약 200년(1600-1800)간의 출륙금지 조치 - 와 결부되면서 더욱 상승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이어도'의 내력은⁵⁾ 섬사람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에서 나온 것일 것이며, 그리하여 재일 교포나 출가 해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 진출의 기회가 있을 때 제주 사람들은 과감하게 섬을 떠나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개척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섬 내부에서 누대(累代)에 걸쳐 자족적으로 살아오는 동안 사회관계는 섬 사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경향을 낳았고 그리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통혼권의 범위가 한정되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혈연적 친족관계일 가능성이 커졌고 그리하여 친족의 호칭이나 생활 모습에 있어서도 부계친(父系親), 모계친(母系親), 처가친(妻家親) 삼족(三族)이 모두 친족적 유대를 갖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히 부계친(父系親)의 결속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문중조직은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혈연적 요소보다 지연적 요소가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마을, 같은 동네, 이웃간의 생활은 친족 관념 속에서 영위된다. 흔히 이웃의 부모벌 되는 어른은 '삼촌'으로 호칭되고 자식 벌되는

4) 이 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신행철(1995) 참조, 특히 이하의 논의에서 1·2·3·4항의 서술은 그 내용을 재조직화한 것이다.

5) '이어도'는 제주도민요 '이어도호라'에서 따온 말이며 "제주도의 서남해 중에 있다는 섬"(홍정표 1963: 88)으로 제주인들의 환상 속의 섬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홍정표 및 고은(1976: 24-72) 참조.

이나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모습은 공적 지위의 형식적 관계 이외에 호형호제(呼兄呼弟)의 정의적(情誼的) 관계가 강조되는 경향이 또한 그러하다.

2. 삼재(三災)의 기후 조건, 척박한 농토와 제주인의 삶

제주섬이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척박한 토지 조건, 그에 따른 풍(風)·수(水)·한(旱) 삼재(三災)의 기후 조건 속에서 제주인들은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된 자연과의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었으며 여기서 제주 사람들은 초월자에 지향하는 무속적 생활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극한적 상황에 처했을 때 구세주를 찾는 원리와 같다고 할 것이다. 조선조에 당 오백 절 오백(당 五百 절 五百)이 있었다고 하거니와 이는 바로 제주인들의 무속적 삶의 세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며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제주섬을 '신들의 고향' 혹은 '신들의 섬'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전경수 1985 ; 고대경 1997). 이러한 열악한 생활 조건 속에서 제주사회는 삼무(三無)의 생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도둑질하지 아니하고(도무: 盜無), 빌어먹지 아니했으며(걸무: 乞無), 따라서 거주 공간을 차단할 필요가 없었다.(대무문: 大門無) 이는 제주인의 협동하며 공동으로 사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인 것이며 공동체적 삶은 외부세력의 횡포와 억압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더욱 굳어졌던 것이다. 제주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간의 수눌음은 공동체적인 소규모 협동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3. 영농규모의 협소성과 제주인의 삶

말할 것도 없지만 농업사회에 있어서의 영농환경은 그 사회 성원들의 삶의 모습을 규정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제주인들은 농토의 척박성과 협소성의 조건 속에서 전래의 유교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고 농촌의 영농조직을 형성하였다.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력이 낮은 상황 속에서 가족은 생산인구로서의 의미보다는 소비인구로서의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주사회의 경우 장남분가원칙에 입각하여 가족의 규모를 소규모 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소가족제도의 부부중심형 가족에 있어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부모나 친족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시집간 여성 곧 며느리의 발언권은 그만큼 강화될 개연성을 갖는다. 모중심적(母中心的) 가족구조가 여기에 관련된다.

친족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부인의 자율성과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전작농업(田作農業)에서는 답작농업(畝作農業)에 있어서 보다 여자들의 노동력이 더 소용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업적 생산활동의 경우 해산물 채취에 있어서 해녀들의 역할은 경제생활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의 전작영농에 있어서는 노동능력에 따라 노동활동 영역이 남·녀 상호간에 광범위하게 허용될 수 있는 남·여간의 유연한 분업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한편 농토 면적의 제약은 지주제의 등장을 부정하였고 기껏해야 중소지주 직영의 영농이 간혹 있었을 뿐이며 지주 예측적 지위의 소작농은 희소하였다. 완전한 무산자(無產者)나 임노동자 또는 걸인이 없었던 것도 이런 환경 속에서 가능했으며 이렇게 해서 사회·경제적 차등화는 크지 않았다. 여기에 제주사회가 평등 사회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제한적 영농규모 때문에 잉여생산물이 크게 축적될 가능성이 적고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크게 많이 가진 사람도, 크게 적게 가진 사람도 없게 된 것이다. 제주에는 육지부에서 보는 바와 같은 만석꾼, 천석꾼 하는 대지주가 없었고 솥을대문을 단 대저택도 발견되지 않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 특유의 머슴제도는 있었으나 마름제도는 발달되지 않았으며 의식주를 중심으로 소위 양반문화가 결여되어 있고 노비제도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은 남의 위에 군림하

려 하지도 않고 남의 억압에 맹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제주인의 기상을 낳았다.

4. 지리적 주변성, 피억압적 역사성과 제주인의 삶

역사적 기록에서 보면 제주사회는 대체로 관리의 횡포에 시달려 왔으며 그에 대해 저항적인 노력도 강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제주인들은 지역 공동생활권을 단위로 하여 상호 결속하는 협동적 생활 체계를 형성하여 외부 세력에 대처하였다. 이것은 생존권적 저항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사회를 나름대로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의의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혈연적 의미의 약화와 결부되면서 제주사회를 지연성이 강한 사회로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바다의 어장이나 목장 등 많은 지역 자원들이 지역 공유제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그 지역 단위에서 협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지연적 조직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 지연적 결속의 범위로 중요한 단위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은 지역공유제의 주체이며 사회조직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제주의 마을은 식수를 중심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집촌을 이루어 형성되었으며 대체로 잡성촌(雜姓村)의 성격을 지녔다. 규모가 큰 것은 식수원이 희귀한 제주의 지형적 조건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왜구의 침략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공동의 외부 침입세력에 대처하려는 의미도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잡성마을에서는 흔히 마을 내혼(內婚)이 이루어져 마을 주민들은 서로 혈족과 인척의 복잡한 관계를 이루어 결속하게 되었다. 목장이나 어장을 마을 공유로 하여 운영하면서 자원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 생활질서를 유지하였다. 또한 마을마다 포제 등 마을제를 지내고 본향당을 두어 마을 공동의 조상을 진설하는 등 상

징체계를 통하여 마을 단위의 지연적 조직을 강화하였다.

마을은 이와 같이 경제조직의 지역단위이며 신앙생활의 단위였을 뿐 아니라 자치적 의사결정의 단위로서의 성격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지연성이 강한 사회에 있어서 지역 단위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처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향회나 향약 등은 그 구체적인 장치이다. 대부분의 계조직이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도 마을이 지역 조직의 중요한 단위가 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격리 · 피차별적 역사성과 제주인의 삶

제주도 유생들에게 과거를 통한 관계 진출의 기회가 육지부와 같이 공평하게 주지 않는 조정의 차별화 정책은 유생들의 학문의 목표를 입신 출세의 관계 진출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데 두게 만들었으며 과거를 보는 행위는 제주도 내부의 경쟁으로서 마을 단위의 위세를 겨루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도내의 유교침투와 성숙을 가져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추측된다(고선휘 1997: 21). 이것은 제주사회가 유교문화를 심화시킨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제주 사람들은 유교적 전통에 입각하여 관혼상제의 의례를 중히 여겼으며 특히 장 · 제례에는 유교적 방식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조선조에서 파견된 중앙의 관료는 제주도인 향직을 통해 지배하면서 제주도의 자주성은 유지되었으나 제주도에 대한 이익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중앙을 향한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하였다. 그 역사적인 한 예로 19세기 말 일본의 어업진출을 시도할 때 조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강력하게 저항했던 기록이 있으며(고선휘 1997: 28 참조) 조선조 말 이제수난에서 해방후 4·3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도민적 저항이 그런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제주도가 조선조에 속해 있으면서도 격리되어 차별받던 역사의 경험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제주인의 배타적인 사회

적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외래인은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우호적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자원이 부족한 도서환경에서 자원부족 상황을 더욱 가중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옛날 탐라독립국의 내력이나 유배의 내력은 우리 제주인들의 심성 깊은 곳에 자리하여 마치 잃어버린 숲을 그리는 '야성의 부름'(The Call of the Wild)⁶⁾처럼 제주인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Ⅲ. 제주인의 정체성

1. 삶의 방식에서 본 정체성

제주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적인 방식들을 개괄해 보면 민속측면의 의식주와 공동벌초,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장남분가주의와 균분상속, 자연적 측면에서의 공동체적 삶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김항원 1990 참조).

의식주 중에서 식생활의 경우는 더욱 정체성이 뚜렷한데 곤밥 먹기가 힘들었던 기억, 돌레떡·침떡·빙떡에 대한 향수, 미역 넣어 끓인 옥돔국과 호박 넣어 끓인 갈치국, 자리회를 좋아하는 성향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와 주의 경우는 해녀복과 갈옷에 대한 기억, 초가집과 돌담에 대한 친근감, 초가집에 상방과 굴목이 있는 것을 자연스레 느끼는 점 등이 그러하다(김항원 1990: 226).

공동벌초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가 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소위 '벌초 방학'을 하는 사례는 그야말로 제주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제주 특유의 풍속도라 할 만하다.

6) 영국의 잭 런던(J. London)의 소설 제목.

친족관계의 면에서 '장남이 부모를 꼭 모시지 않아도 되는' 장남 분가주의 전통과 '균분상속에 대한 선호'는 육지부 다른 지방의 직계가족제의 유교적 전통에서 보면 가히 파격적인 제주인의 모습이라 하겠다.

제주도는 자연성이 강한 사회로서 지역단위 특히 마을 단위의 공동체적 협동생활이 체질화되고 있기 도하다. 다른 지방에 나가서 거주하는 제주도인들도 마을 단위 친목조직이 꽤나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런 공동체적 생활의 한 표현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다. 특히 제주사회는 삶의 모습에서 빈부의 차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평등성이 유지되어 온 사회라고 할 수 있다.⁷⁾ 이는 공동체적 협동을 조장하는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지역 공동체적 협동에서 제주인의 정체성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지방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특이하다고 느끼는 바를 통하여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호박을 넣어 끓인 갈치국을 먹는 것', '장남이라도 결혼하면 분가를 시키고', '한 울타리 안에 노부모와 결혼한 자식이 같이 살면서도 취사를 따로 하는 것', '재산과 제사상속을 균분하는 것',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생활하려는 것' 등이다(김항원 1990: 228).

2. 의식상에서 본 정체성⁸⁾

근검·소박한 생활태도와 자립정신 그리고 진취적 기상에서 우리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정체성은 자연적인 악조건과 역사적 시련에 부딪치면서 제주인들이 생존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제주사회는 한반도의

7) 김항원(1990: 227)은 특히 복식의 평등, 노동의 평등 및 남녀의 평등에서 제주사회의 평등성의 모습을 찾고 있다.

8) 신행철(1980 ; 1996) 참조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사회로서 제주도민은 외적의 끊임없는 침입과 관의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강력한 자립의 의지를 지니게 되었다. 더욱이 척박한 토질과 기후적 조건 속에서는 근면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생활은 곧 노동이었다. 노동의 과중한 부담에 처해서 생활의 비참함에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체성은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과 전망이 가져다주는 외부에의 진출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도'라는 말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섬을 떠나는 데 대한 매력을 늘 갖고 있다는 점이다. 재일동포나 출가해녀들처럼 해외 진출의 기회가 있을 때 제주 사람들은 과감하게 섬을 떠나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 기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어도'의 의미는 이상향에의 추구이며 섬을 떠나지만 다시 돌아온다 즉, 어려운 자신의 환경을 벗어나 외부 세계로 진출하지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기회원의 기상이다. 제주인은 제주에 살아남기 위해 '이어도' 엑소더스(exodus)를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곧 부정의 부정 즉, 자기긍정의 기상인 것이요, 제주인의 고난 극복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 '이어도' 정신은 자기 부정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기질로 승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또 다른 제주도민의 생활태도에서 볼 수 있는 정체성으로 수분지족(守分知足)의 경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자기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을 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민들은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고 자기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으려는 정신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 결국 제주에 도둑과 거지가 없는 생활분위기의 바탕이 되고 이러한 생활윤리가 도민들에게는 형평의 의식 혹은 평등의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 보다 잘난 것도 없지만 못할 것도 없다는 형평의식, 또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자기 것을 빼앗기지도 않는다는 정의구현 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

생활세계가 외부세계와 고립되고 한정된 도서라는 특성에서 오는 제주인의 배타적인 사회적 성격은 또 하나의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들만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특정 사회가 외부로부터 고립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내·외집단의 구별의식이 강화된다. 외부세계인 육지에 대해서 선망을 하면서도 내집단의식을 바탕으로 거부감을 갖는다. 제주 사람들은 본도와 본도 이외의 나머지 지역을 육지로 구분하고, 그들이 처하는 외부적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배타적 기질이 형성되었는데 이런 배타성은 고립된 사회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갖는 내·외집단에 대한 강한 구별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박재환 1978: 632). 이러한 구별의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주와 육지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표현양식에서 잘 나타나 있다. ‘육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으로 사용되어 ‘문명지’, ‘제주도에서 먼 거리’, ‘보다 넓은 세계’로 인식되면서 배타적 태도가 은연중에 숨어 있는 말인 것으로 보인다(유철인 1986: 74 ; 유철인 1984 참조). 따라서 외부세계인 육지에 대해서 선망을 하면서도 내집단의식을 바탕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런 배타적 성격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자신들의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정체감은 제주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기능적 측면이 있음에 틀림없으나 자칫하면 외부인과 외부 세계를 배제하는 제주인의 배타성을 다른 모습으로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3. 전통성의 측면에서 본 정체성⁹⁾

제주도민은 그들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그들 나름대로의 의식 원형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곧 의식상의 전통성이자 정체성이다.

9) 신행철(1980) 참조.

제주도의 역사적 전통은 한국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한편 제주도는 도서라는 환해적(環海的) 격리 사회로서의 특유성 때문에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띠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제주도는 그 지리적 조건 때문에 과거 새로운 문화양식이 유입되기 곤란했을 것이지만 어떤 문화양식이 토착화하면 그 변화에의 자극 또한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특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한국적 전통요인이 결부되어 그에 상응하는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1980년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민의 의식 속에는 샤머니즘적, 유교적 성격의 의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부연하면 제주도민들에 있어서 보면 샤머니즘적 풍습에 관련하여 분묘(墳墓)나 신구간에 대한 의식이 타도민에 비하여 강하게 남아있고, 유교적 전통의식이라 할 수 있는 관지향(官指向) 의식이나 관료적 서열의식 등이 강하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타도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남·여격리의식이 낮고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자유혼적인 경향이며, 핵가족에 대한 선호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도민들이 전통적으로 민주적 형태의 의식이 강하다는 점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여격리의식이 낮다는 것은 남존여비라는 전근대적 의식의 약화이며 민주주의 평등이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혼적 성향의 의식이나 핵가족 선호경향은 가부장적 가족주의 의식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가족관계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주의가 가까운 사람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이기주의적 성향을 지나게 된다면 이는 민주화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인즉 탈 가족주의 의식은 사회 민주화에 공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IV. 일본 속의 제주인, 그 삶과 정체성

집단정체성은 해당 집단에 대한 낮은 자로 인식할만한 가시적 경

쟁자가 없을 때는 매우 미약하다고 한다(정근식 1997: 124). 일본의 제주인들은 '조국이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을 견디어온 사람들로써 '일본이라는 바다 위에서 하나의 섬처럼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단 정체성이 매우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10)

제주 출신 재일동포의 수는 1991년 공식통계 12만명(정확하게는 11만7천5백13명), 미등록 동포 포함 약 15만명 추정하고 있다(재일본제주도민회 1993: 64). 이는 도외 거주자들의 분포에서, 부산에 8만명, 서울에 5만명, 전라도에 1만명, 기타 1만명인데 비하여 보면 가장 많은 수치이며(재일본제주개발협회 1991: 48) 일본 거주 전체 외국인(1백7만5천3백17명)의 11%, 한국과 조선 국적소유자(68만7천9백40명)의 17.8%가 된다.11)

그 거주지를 보면 호카이도(北海道)에서 규슈(九州), 오키나와(沖縄)까지 47개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걸쳐 적게는 10여명 수준에서 많게는 7만 여명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주로 도쿄(東京)중심의 관동지역과 오사카(大阪) 중심의 관서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이 두 지역에 94%에 해당하는 11만5백56명이 거주한다(관서지역에는 69%인 8만1천명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 외국인의 22%이고 한국과 조선 국적자의 25.7%에 해당한다). 47개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오사카(大阪府)로서 이곳에 7만1천6백77명이 거주한다. 결국 대판을 중심으로 한

10) 이하 이 IV.항의 기술은 주로 재일본제주도민회(1993: 63-95)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그 이외의 참고자료에 대해서만 그 인용을 밝혀려한다.

11) 한국(북한 포함) 국적을 갖고 있는 재일동포 68만7천9백40명은 재일거주 외국인 전체 1백7만5천3백17명의 64%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일제주동포 11만7천5백13명은 출산지 지역별 인원수에 있어서 경상남도(23만1천4백18명), 경상북도(16만4천33명)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국내 해당 지역별 상주인구에 대비해 보면 가장 많은 수의 제주인들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셈이다. 본도 상주인구의 약 23%에 해당. 1990년의 통계(재일본제주개발협회 1991, 부록 참조)에 따르면 재일한국동포 총 677,140명 중 경상남도 34,184명, 경북 165,084명에 이어 제주도 117,684명이다.

관서지방이 제주 출신 재일동포의 이민거점지가 되었음을 나타내어 준다

본도 출신이 대도시, 특히 오사카(大阪), 고오베(神戸) 등 관서지방에 많이 거주하는 것은 오사카와 고오베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에서 직공 모집이 많아서 취업이 비교적 유리하였기 때문이라 한다. 제주-오사카 간 기미가야마루(君代丸)¹²⁾ 등 정기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왕래가 쉬운 지역이라는 점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일본 오사카의 이꾸노구(生野區) 등에는 본도 출신 주민들이 밀집해 '일본 속의 제주'를 이루어 놓았다.

1. 도일 정착과정

제주도민들이 일본에 건너간 동기는 다른 지역 동포들과 비슷하다. 1910년 한일합방 이전의 경우는 자발성 도일기이다. 개화기에 처한 한국인은 주로 신학문을 찾아 유학을 목적으로 도일하였다. 이 시기에는 또한 일본 상인이나 지주들이 한국에 대한 침식이 시작되던 시기이면서도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그 외교관이 주일공관에 주재하던 시기이며 이때 노동이동도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인은 일본기업의 인부모집에 응하여 도일한 바 있는데 인부모집 방법은 "일본인의 인부모집자가 기업의 청부를 받아 현지에서 모집하여 도항시키는 방법"(전 준 1973: 13)이었다.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한국인의 도일이 본격화되고 재일 한국인수가 격증되었다. 일제식민정책에 의해 농어촌이 피폐화 되면서 겪는 생활난과 일본의 공업화로 인한 대량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많은 동

12) 이 배는 값 싼 노동력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였다. 1922년 10월부터 취항, 930톤 급, 제주-시모노세키-오사카 노선, 48시간 소요(시모노세키까지 24시간 시모노세키에서 오사카까지 24시간), 월 3회 산지항 기점 입·출항. 조천, 김녕, 성산포, 표선, 서귀포, 고산, 한림, 애월 등에 기항(재일본 제주도민회 1993: 64).

포들이 도일하게 된 것이다. 일차대전 이후 호경기를 맞은 일본이 방직·조선·제철·항만·탄광 등의 산업 영역에 필요 노동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면방직업의 대량생산체제로 인하여 우리 고장의 수공업 형태의 면직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제주도 당국은 일제 식민정책에 호응하여 일본의 노동력 모집에 적극 협조 알선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 사람들은 근대 공업노동자로 많이 건너가게 된다. 더러는 해녀로 출가했다가 눌러앉거나 특히 밀항으로 건너가 숨죽이며 살아온 이들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차세계대전에 돌입하면서 징병이나 징용으로 강제 연행되는 경우도 많았다.

해방후 불안한 국내정세 때문에 관망하던 사람들과 귀국하지 못할 사정으로 일본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 경우들도 많았으며¹³⁾ 4·3 등 정치·사회적 혼란 등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도 허다하였다. 일본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주의 생활고를 피해 도일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1세'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 '새로운 1세'들은 해방 후 밀항 즉 불법 도일한 사람들 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렇게 해서 재일제주도민 사회는 해방전 거주자들의 가계 4세까지, 해방후 도일한 거주자들의 가계 3세까지를 포함하여 형성되어있는 것이다.

1905-1935 사이의 제주도 실정은 일제의 수탈로 궁핍이 극에 달했고 흉년까지 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일자는 급증하였는데

13)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귀환의 장애 요인들이었다 한다(재일본제주도민회 1993: 86 및 88).

- 뚜렷한 일거리가 없었다
- 재산 반입이 어려웠다
- 콜레라 등 악성 전염병의 창궐
- 불안한 치안 상태

14) 도일 시기는 제 1기(1910-1919) 유치기, 제 2기(1920-1930) 조절기, 제 3기(1931-1938) 억제기, 제 4기(1939-1945) 강제연행기, 제 5기(해방후) 밀항기 등 5개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 1기: 구한국시기(강화수호조약-한일합방), 제 2기: 일제하 식민지수탈기(한일합방-태평양전쟁발발), 제 3기: 일제하 전시체제하(태평양전쟁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김상현 1969: 26-31 및 전 준 1973: 11-17 참고).

도일 목적은 거의(도일자의 약 90%)가 생활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구하여 돈벌이하려는 것이었다. 坪内住次の 자료¹⁵⁾에서 우리 동포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도쿄, 고오베, 교토, 오사카의 경우를 보면 지역 별로 이주 목적에서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920년대의 경우 도쿄에는 주로 고향의 생활난 때문에 이주하는 소극적 이주자들이 많았는가 하면 고베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나 돈벌이를 위하여 이주하는 적극적 이주자들이었다. 1930년대에는 사정이 바뀌어서 도쿄에는 노동이나 돈벌이하려고 건너간 사람들이 단순히 생활난을 피하여 간 사람들 보다 훨씬 많은데 대하여 고오베에는 대다수가 생활난을 피하여 간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20년대 당시에는 고오베에 노동기회가 많았고 도쿄에는 어떤 인간적 인연으로 의탁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한편 30년대에는 그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30년대 교토와 오사카의 경우를 보면 교토에는 일자리를 구하여 돈벌이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오사카에는 생활난을 피하여 이주하는 소극적 도일이 상당히 많았다.

1920·30년대에 건너간 도일 1세들의 경우 다리를 제대로 뻗고 잘 수 없는 숙박 조건에서 뼈빠지게 일을 하면서 극한적인 생존 조건을 극복한 그런 세대들이었다. 그러면서도 뒤늦게 건너간 동포들을 맞아 하숙은 물론 직장까지 알선해 주어야 하는, 쉽지 않은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다.¹⁶⁾

당시 방직공장과 신발공장 등에서 직공으로 일하였던 동포들에게는 감독의 폭력적 감시 속에서 돼지죽을 연상케 하는 식사가 공급되

15) 坪内住次, “한국인 노동자 내지이동(内地移動)의 원인에 대하여”(재일본 제주도민회 1993: 84에서 재인용)

16) 1920·30년대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자료에는 우리 동포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인 노동자는 조선에서 소작농이나 낱품팔이에 종사한 관개로 특별한 기능이 없어서 일본에 온 후 대부분 도시로 유입, 혹은 전전하면서 이주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조선인 노동자는 조선인 밥집에서 합숙하거나 판잣집을 만들어 다수 인원이 칩거하고 있다(재일본제주도민회 1993: 68에서 재인용).”

었다고 한다. 특히 일본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인 감독의 주먹질이 빈번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분적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쟁의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일제하의 식민지 조선 국민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1920년대 일본이 우리 노동자를 대량 유입하여 고용하게 되는 것은 낮은 임금을 책정함으로써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이윤을 확실히 챙기려는 일본의 식민적 수탈정책에 따른 것이면서 일본인들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따라서 조선인에 대한 억압적 지위를 누리려는 새디스트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임금 수준을 보면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이 분명한데 농업을 포함한 육체노동자의 평균 임금(일당)에서 일본인은 최고 2.65원 최저 1.54원인데 대해서 조선인은 각각 1.85원, 1.17원으로 일본인은 보통 2.02원의 임금을 받는데 비하여 조선인은 1.54원에 그치고 있다.¹⁷⁾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도포들은 도병상련(同病相隣)으로 함께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정착하게 된다. 일단 독신으로 도일한 동포들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족시대'에 이르러 상조모임인 '제우회'도 조직되었다.

일본에 건너간 제주 사람들은 제주 특유의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특히 혈연 지연관계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기도 하고 숙박이나 취직을 알선하기도 하였다. 그 처음 정착과정에서는 육지인으로 부터도 '섬놈'이라고 멸시와 비아냥거림을 받으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인들은 그들 본래의 강인한 정신과 근면·검소한 생활태도로 하여 당시의 그 듯한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타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17) 1923년 6월, 오사카시 사회부 조사과, '조선인 노동자문제'(재일본제주도민회 1993: 82에서 재인용) 참조.

2. 사업으로 성공한 재일동포 그리고 향토 교류

사업으로 성공한 경우를 보면 안재우씨가 1973년 일본 전국 고액납세자 순위 4위에 오르는 등 굴지의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최근에는 2세대까지 합류하여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독특하게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다. 1991년의 경우 일본법인 소득 순위 10만위권 안에 30개나 되는 기업들이 우리 재일제주동포들의 기업이다.¹⁸⁾

1970년대에 들어 1세 기업가들이 2선으로 물러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반면 2세와 함께 이제 3세들의 진출이 시작되고 있으나 우리 많은 동포들의 사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한국인상공인협회가 1989년 동포상공인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7%가 일본에서 자랐고 해방전에 도입한 1세대들은 6.5%에 불과하다. 연령구성 별로는 30세에서 49세까지가 65.2%, 29세 이하도 7.5%로서 72.7%가 4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창업자들이며 29세이하의 창업자들도 3분의 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규모를 보면 불고기, 다방, 스낵 등 음식업의 경우 대부분(64%)이 연간매출액 3천만엔 이하이고 재생자원사업의 경우도 56%가 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파친고업을 포함해서 43%가 연간 매출액 평균 1억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일제주동포들은 그 사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생활에 틀이 잡히면서 애향정신을 발휘하여 고향으로 송금하는 예들이 많았고, 1960년대 초부터는 향토 방문도 시작되었다.¹⁹⁾ 5·16 후 향토방문이 본격화되면서 도 당국은 재일동포와의 교류를 적극 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동포애라는 정서적

18) 재일본제주도민회(1993: 90) <표 13> 91재일동포 소득신고 순위(법인) 참조.

19) 1961년도의 경우 정부 초청 250명 중 30명이 본도 출신이었다(재일본제주도민회 1993: 92).

인 측면도 있었겠지만 동포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유치하기 위함이었다. 제주도는 재일본제주도개발협회에 대해 향토 방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1962년 2월과 4월 2차에 걸쳐 재일 동포의 향토방문이 실현되면서 본격적인 향토와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재일동포의 각종 향리사업 지원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특히 감귤묘목, 전기, 수도 등의 시설에 큰 기여를 했다.

본도 출신 재일 동포들은 지난날 그 가난했던 시절의 고향에 대한 향수 속에서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고향의 친지들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단체로 교육과 문화사업, 새마을사업 등에 많은 금품을 제공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지방일간지에 거의 매일 1건 이상의 기증실적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제주도 당국은 시·군을 통하여 도내에 재일 동포들의 기증실적을 집계하여, 1983년과 1991년 2회에 걸쳐 그 실적을 엮은 『애향의 보람』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1960년대 이후 1990년까지 기증된 성금품은 총액 82억9천3백43만3천원, 현재가로는 1천억원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사업분야 46억6천7백93만7천원, 교육부문 24억1천8백10만7천원, 문화사업지원 6억5천8백43만4천원, 기타 5억4천8백95만5천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3. 재일제주동포의 삶

근 1세기에 가까운 세월동안 차별과 멸시의 벽을 넘어 일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재일제주동포들의 삶은 어떠한가? 재일제주동포들이 발집하여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오사카의 이쿠노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²⁰⁾

20) 여기서 서술되는 이쿠노지역의 동포사회에 대한 것은 주로 이문웅(1988; 1989)을 참고하였다.

이꾸노구는²¹⁾ 한인들이 정착하기 전만해도 거의 버려진 땅이었는데 저지대인 이 지역을 가로질러 남북으로 뻗어있는 히라노가와(平野川)라는 운하가 있었다. 1923년에 이 운하를 개수하는 공사에 한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되었고 이때 이 지역에 세워진 밥집 바라크를 중심으로 한 한인촌이 형성되었던 것이 지금의 이꾸노 동포사회의 효시가 되었다. 이꾸노의 중심이 이까노(猪飼野)로 알려진 곳인데 여기가 동포 밀집거주 지역이며 조선시장이 자리잡은 곳이다. 이 시장은 특히 명절때가 되면 오사카뿐 아니라 관서지방의 먼 곳에서까지 시장 보러 몰려드는 그야말로 '민속시장'의 역할을 한다. 이 시장에서 약 2km 북쪽에 떨어져 국제시장인 쓰루하시(鶴橋)가 있는데 쓰루하시는 상권의 측면에서 이꾸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시장의 상권을 제주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오사카의 시기산(信貴山)과 나라(奈良)의 이코마산(生駒山) 등지에 백여 개의 조선사(朝鮮寺)가 있다고 하는데 그 조선사에는 대체로 법당과 굿당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불교와 우리의 무속이 결합되어 존재하는 특이한 종교형태로서 재일동포사회의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선사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면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심방이나 보살의 굿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심방이나 보살이 이런 조선사를 운영하고 있고 더러는 소유주가 한국에서 유학 온 스님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이문웅 1989).”

재일제주동포들의 생활과정은 그 자체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민족 차별의 대상이었다는 점과 함께 많은 동포가족이 경험한 법적 지위상의 문제는 생활과정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생활은 결국 재일 제주인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

21) 오사카의 중심부를 한바퀴 도는 전철 JR 환상선(環狀線)의 동남쪽 외곽에 위치함.

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꾸노의 제주 사람들간에게는 심방이나 보살, 더러는 스님이 일상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 가업이 어려워지거나 화재, 질병 등의 위기 - 에 관해 상담역을 맡고 있는 예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해결책은 굶으로 귀착된다 - 굶은 조선사에서 치러진다.-

우리 동포들은 온갖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면서 현실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신적 지주로서 무속에 의지하였고 이 무속을 제도권의 불교의 틀을 빌려서 일본사회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 본도의 무속적 분위기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사는 어려운 환경의 극복 방편인 점과 상통한다. 여기서 우리는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속적 의례행위를 통해서 통합되고 제주 사람들의 아이덴티티가 유지·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속은 단순한 주술적 신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문용 교수(1989)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작은 제주'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제주 방언, 토속음식 등 현재 제주에서는 이미 상당히 변모하여 찾아보기 힘든 문화요소들이 제주 사람들의 생활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거기에는 회로애락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훈훈하고 따듯한 인정이 있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하는 제주의 전통적인 생존전략들이 제주 사람들을 한 덩어리의 '우리' 제주 사람들로 묶어 놓고 있다. 공동체적 협동의 정체성이 스며나는 장면인 것이다. 흔히 마을 단위 상호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제주적인 모습이라 할만 하다

동향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뿐만 아니라 대체로 재일제주동포들은 그들끼리 혼인을 하는 집단내혼의 경향이 강하고 사업상의 접촉 범위도 가능하면 그들간에 형성됨으로써 내집단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재일제주동포사회라는 '우리집단' 사회를 형성하면서 집단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제주사회를 사실상 하나의 '사회적인 섬'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제주'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지만 생존전략의 하나였음은 분명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개 일본인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제조업 분

야 - 손이 많이 가고 인화성의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셀달 제조업, 철공소, 플라스틱제품 등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냄새가 고약하고 위험한 기름투성이의 작업²²⁾ - 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점은 일본사회의 푸대접받는 소수민족인 우리 동포들이 일본과의 경쟁을 피하면서 정착할 수 있었던 방편이었을 것이다. 즉 일본인들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민족차별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재일제주인들의 의례생활은 제주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이문웅 1988). 상제에서 3년상이, 기제사에서 4대봉사 거의 그대로 남아 지켜지고 있다. 이런 의례는 제주 사람들이 친족의 유대를 다지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나가서는 외척이나 인척들은 물론 친지들까지도 제사에 참배하는 관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동포끼리의 인간관계를 다지게 되고 동포사회의 유대는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숭배의 의례를 넘어서 '친교'의 기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공한 재일 제주 출신 사업가이며 제주대학에 해양연구소를 기증한 바 있는 강구범은 "구미의 문명을 동경하며 결행한 가출, 일시 체류지로만 여겼던 일본 땅 정착과 사업... 등 ... 변전과 격동에 찬 나날이었다."라고 그의 78년을 회고하고 "오늘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면 나는 이제껏 '고향을 그리는 긴 여로'를 더듬어 온 셈"이라고 솔직한 바 있다(강구범 1987. 서문.).

한 양로원의 노인은 "갈 기회가 있으면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까지만 갖다 올 작정"이라고 하였다. 그 양로원(오사카의 사카이시에 위치한 '고향의 집')의 입구에 새겨진 다음의 동요 말은 이 노인의 심정을 잘 담고 있다(강권수·신용훈 1993: 24).

22) 일본인들이 이른바 3K라는 것은 취업을 꺼리는 3개의 요소인데 그것은 '키타나이'(지저분함), '키쓰이'(힘듦), '코와이'(위험함)이고 그런 직업 분야는 고무, 신발, 의류, 유리공장 등이라 한다(강권수·신용훈 1993. 참조).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닿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싸꾸기 울겠네〉

이렇게 제일제주동포들은 '이어도 엑소더스'로 도일하였으나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고향 회귀의 이어도 정신이 자리하여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에 붙여

이제까지 논의한 내용은 대체로 전통적 제주인의 생활 모습을 선별적으로 서술하면서 제주의 집단정체성을 점검해 본 것이다. 제주 본도에도 그런 점이 있거니와 일본의 제주인 사회에는 더욱 그 정체성이 잘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래 공업화과정 속에서 적지 않게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나, 제주 사회는 그 공업입지가 불리하기 때문에 도시화가 덜 되고 농업 사회적인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며, 동질성이 유지되는 지역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을 우리는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우리의 미래의 자산으로 건전하게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이 그런 조그만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근대에 이르러 국민국가로의 통합과정에서 수많은 지방언어와 지방문화가 사라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규모의 문화시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언어와 문화는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상당수가 살아질 것이다. 형식적인 평등에 입각한 문화시장의 개방이나 문화재에 대한 시장원리의 무차별적인 적용은 이러한 소멸과정을 스스로 앞당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함과 동시에 우리의 문화 향유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권리, 즉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진 집단으로서 생존과 번영을 계속해 나갈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문화주권의 원리를 건

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한경구 1997)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를 지키는 원천은 그 정체성의 견지에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검토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 제주인의 정체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부정·공정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확고하다는 점이다. 이는 문화의 시대 21세기를 맞으며 제주사회의 긍정적 미래를 예고해준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백범 김 구-

참 고 문 헌

강구범

1987 『망향의 여로 -내가 걸어온 78년-』, 서울 : 모음사.

강권수 · 신용훈

1993 『오사카의 숨비소리』, 다문.

고대경

1997 『신들의 고향』, 증명.

고선희

1997 “해양문화적 배경에서 본 제주도”,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섬에서 세계를 본다』(주최 추계세미나 발표 자료집).

고 은

1976 『제주도 -그 전체상의 발견』, 일지사.

김상현

1969 『재일한국인』, 단국학술연구원.

김향원

1990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재환

1978 “인간상호작용에 관한 제주도민의 사회의식”, 제주대 『논문
집』(인문사회과학편) 제 9집.

신행철

1980 “제주도민의 사회·문화의식 상의 전통성”, 제주대 『논문집
』 11집.

신행철

1982 “재일제주교포 : 그 소수집단으로서의 성격과 계층구조”, 제
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창간호.

신행철

1995 “제주사회의 기본적 성격”, 신행철 외, 『제주사회론』, 한
울.

신행철

1996 “21세기의 도래와 제주도민 의식 - 21세기, 제주도민 의식의 전환을 모색하며 -”,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 2집.

유철인

1984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 접근”,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1집.

유철인

1986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 방식”,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5호.

이문웅

1988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5집.

이문웅

1989 “재일 제주인사회에서의 무속”,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6집.

재일본제주개발협회

1991 『애항무한: 재일본제주개발협회30년사』, 재일본제주개발협회.

재일본제주도민회

1993 『일본의 제주혼 - 재일본제주도민회30년사』, 재일제주도민회.

전경수

1985 “제주도의 관광개발과 지역문화보존을 위한 제언”,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 2집.

전 준

1973 『조총련연구』, 고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정근식

1997 “지역정체성과 도시상징 연구를 위하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지역사회 연구방법의 모색』, 전남대 출판부.

한경구

1997 “문화에도 ‘주권’이 있다”, 「교수신문」, 10월 27일자. 16면.
‘문화단평’ 기사.

홍정표

1963 「제주도민요해설」, 성문사.